

불교 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과 그 교육적 의의

이 송 곤
동국대학교

〈요 약〉

불교 경전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학습자에게 탁월한 학습 효과를 주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경전이 전하는 이야기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방편적 수단으로서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이야기가 말해지는 방식등을 통해서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훌륭한 학습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방편은 수기적(隨機的) 학습방법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전 이야기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학습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야기는 이야기에 관한 해석 방식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해짐으로써 학습자는 후속적인 교설의 학습에 있어서 교육적 경험의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야기가 학습자에게 들려주게 될 경우에는 정체성이 길러지게 된다.

특히 이야기의 역할이론에 의하면 경전 이야기는 첫째, 수업의 기대태세로서 역할을 한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끌며, 학습동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업을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적용으로서의 이야기로서 역할을 한다. 다른 교과목을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에 이야기를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수업의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로서 역할을 한다.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배운 것을 요약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자원으로서의 이야기로서 역할을 한다. 특정 주제에 통찰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틀로서 이야기가 수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야기는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학습방법의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런 점에

서 불교 경전의 이야기는 불교적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경전 이야기는 학습과정에 있어서 교육적 경험의 성숙과 발달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위한 수기적(隨機的) 학습방법의 의미를 지니고 현대 교육에서 불교학적 담론으로서 재개념주의의 교육적 전망을 준다고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경전 이야기, 불교적 내러티브 학습방법, 수기적 학습방법, 재개념주의의 교육적 전망, 이야기의 역할이론

I. 서 언

불교경전은 삼법인·사제·팔정도·연기법 등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본생담』·『육도집경』·『보살본연경』·『과거현재인과경』·『현우경』·『법구비유경』·『백유경』 등에서 전하는 교훈적인 성격을 띠는 이야기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우경등 경전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상 경전들은 붓다의 전생 이야기나 우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보시·지계·인욕·정진 등 육바라밀과 효도 등 불교의 실천 수행을 권하는 덕목에 이르기까지 주로 이야기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 논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경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탁월한 학습 효과와 함께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전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갖는 보다 큰 의미는 교육현장에서 불교적 교사인 선지식이 이야기를 말하는 학습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인 대중들의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경험의 성숙·발달과 함께 깨달음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우경』등 경전의 이야기가 학습자인 대중들에게 방편적으로 말해져서 대중들의 교육적 경험이 성장하였고, 이러한 토대 위에 후속적으로 불교교리가 말해짐으로써 그들의 교육적 경험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학습자는 이야기를 학습방법으로서 택한 학습과정을 통해 중생으로서 짓는 열 가지 악업, 즉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살생·도둑질·삿된 음행 등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인 망어·이간질·악한 말·꾸미는 말 등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탐욕심·성내는 마음·어리석은 마음 등을 점차적으로 끊어버리는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도덕적으로 성숙한 교육적 경험의 바탕위에서 학습자는 점진적으로 삼법인·사제·팔정도 등

교설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실천과정을 통해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목적에는 물론 중생교화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라는 교육목적을 말할 때 중생교화도 같이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자가 불교 경전 이야기가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야기를 통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이끌어 학습자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성숙시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교육과정이 수기적(隨機的) 방편에 의한 학습방법이 되고, 둘째,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의 인식론과 수업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내러티브 사고(思考)에 의해 삶을 만들어내는 특성과 내러티브의 역할이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경전 이야기의 수기적(隨機的) 학습방법의 교육적 의미는 교사와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특성의 학습방법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점차적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현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자아성찰을 통한 교육적 경험의 부재에 대한 불교학적 담론으로서의 재개념주의의 대안적 학습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전 텍스트로서 『현우경』의 한 이야기만을 택하였다. 그 이유는 『현우경』이 이야기 중심의 경전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다가 이야기의 말미에서 교설 가운데 한 주제를 통해서 경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밖에 다른 이야기 중심의 경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예로서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 탐구에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논구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내러티브의 해석학적인 이해와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브루너의 내러티브 사고방식(思考方式), 그리고 그의 자서전적 관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내러티브의 교육적 의미를 알아본다. 이어서 경전 이야기의 특성과 그것이 학습 동기유발을 시키는 교육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현우경』 등 이야기 중심의 불교경전 이야기가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된다는 점을 불교의 이론적 기초로서 산수목건련경에 나타난 수기적 방편의 학습방법을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학습 실재에 있어서 이야기가 학습방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캐롤 로리젠(Carol Lauritzen)과 미첼 예거(Michael Jager)의 내러티브 교육과정(Narrative Curriculum)이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의 역할 이론을 통해서 알아본다. 끝으로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론의 특성을 지니는 불교경전 이야기의 수기적(隨機的)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교육경험을 점차적으로 성장·발달시킨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자인 파이너의 교육경험의 이론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담론적인 성격으로서의 대안적인 학습방법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육적 전망이 된다는 점을 논하기로 한다.

Ⅱ. 내러티브와 불교 경전 이야기

1. 내러티브의 교육적 의미

우리가 내러티브를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이야기의 의미로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석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란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가 텍스트에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황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는 언제든지 달라진다¹⁾고 하였듯이, 이야기는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이 되고, ‘문화’가 되며, 또한 ‘도덕’이 되기도 한다. 이점이 이야기가 갖는 중요성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된다.

이처럼 이야기는 해석학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매개체로 한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이 단지 교과내용인 지식을 통해 전수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교사가 수업시에 하는 이야기를 단지 듣고 마는 상태로 교육이 교사의 주도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매개체로 한 교육 과정에 학생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되어 크나큰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교사의 이야기를 매개체로 한 교육과정은 해석학적 교육실천의 과정으로서 학생과 교육내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내용의 상호관련성으로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²⁾

-
- 1) 손승남,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입각한 교육해석학의 가능성 탐색』, 『교육철학』 제19집 (서울: 교육철학회, 1998), 169쪽.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의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강조하고, 딜타이(Dilthey)가 텍스트에 대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으로 원저자와의 동일성을 회복하려고 한 것에 반하여 가다머(Gadamer)는 스승인 하이데거(Heidegger)와 마찬가지로 이해의 선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다머는 사물의 선(先) 이해(Vorverstaendnis)에 의해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선입관(Vorurteile)과 전통의 부활을 주장한다. 선입관(Vorurteile)은 접두사 Vor(이전의)와 Urteil(판단)의 합성어로서 ‘이전의 판단’, 즉 이성으로 판단하기 이전의 원래의 경험이 살아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다머가 주장하는 선입관(Vorurteile)과 전통의 부활은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가다머는 19세기 이후 문학에서 강조하였던 수용사, 즉 어느 한 저작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자가 저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서가 수용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영향사(Wirkungsgeschichte)라는 개념으로서 정립하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보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 현재의 매개체이며, 그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향사인 것이다.
 - 2) 고진호, 『교사의 해석학적 교육 실천방법 연구: 교육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3권(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68쪽. A. Diemer는 교육적 텍스트가 ‘교사’, ‘학생’, ‘교육내용’이 해석학적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형의 구도만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학적 다이아몬드’모형을

심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 인지적 교육과정 이론의 정립과 교육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브루너는 인간의 마음을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mode of thought)와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mode of thought)의 두 가지 형태로서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패러다임적 사고는 원인-결과를 다루고, 그 특징은 강력한 이론, 치밀한 분석, 논리적 증명, 타당한 주장, 그리고 가설에 의한 경험적 검증 등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내러티브 사고는 예측불가능한 인간의 의도성을 인간의 행위, 문화적 규범과의 연관에 의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³⁾ 그런데 브루너는 서구의 패러다임적 사고 중심의 교육문화에의 편승으로 우리 마음의 사용방식을 한쪽 방향으로만 강화시킨다고 비판한다.⁴⁾

논자는 이와 같은 브루너의 서구의 패러다임적 사고 중심의 교육문화가 마음의 사용방식을 한쪽 방향으로만 강화시킨다는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한다. 그것은 학교교육이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라고 하는 교육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지식의 단순한 전달과 암기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패러다임적 사고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러티브 사고, 즉 이야기를 매개체로서 전개되는 교육의 기능과 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내러티브 사고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패러다임적 사고보다도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브루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내러티브, 즉 이야기에 대해서 “Narrative, 즉 이야기의 방법이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간이나 인간과 관련한 의도, 행동, 흥망성쇠, 그리고 결과 등을 다루는 좋은 이야기와 시청자를 사로잡는 드라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설명 등의 결과가 이루어진다.”고⁵⁾ 말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에는 과학에서든, 예술에서든지 간에, 우리 주변의 객관적인 모습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 주된 기능을 하는 구성주의의 관점이 전제로서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구성주의의 관점은 이야기들의 경우 실제 세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구축된다는 것이다.⁶⁾

또한 브루너는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Stories)을 ‘자서전’(Autobiography)의 관점으로까지 확장하여 자서전의 경우 단순히 발생한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 이 ‘해석학적 다이아몬드’모형을 통해 우리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과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과내용에 대한 사전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한승희, 『내러티브 사고의 장르적 특징에 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4권(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137쪽.

4) 같은 글.

5) Jerome S. Bruner, *In Search of Pedagogy* Volume II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2006), 117쪽.

6) Ibid, 129쪽.

경험한 사실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자서전을 “인생 만들기(life making)”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⁷⁾

브루너는 자서전에 나타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인생에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해석해나가는 인생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이야기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학습을 위한 ‘이야기의 해석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내러티브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신화, 역사, 민담 등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서 아이들의 ‘정체성’(identity)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설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상을 통한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내러티브가 갖는 특성이 이와 같다면 내러티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롤 로리젠·미첼 예거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러티브(narrative)는 그것을 구성하는 짧은 이야기(story)보다 훨씬 더 길고 광범위하면서 포괄적인 일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되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은 내러티브를 이야기의 동의어로서 사용한다.”⁹⁾

2. 불교 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적 특성과 그 교육적 의미

이야기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는 경전으로서는 주로 본연부(本緣部) 계통의 경전들을 들 수 있다.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경전은 『자타카(Jātaka)』·『육도집경』·『보살본연경』·『과거현재인과경』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붓다가 설한 교설의 주제를 갖고서 그 인연담을 전개한 경전은 이 글에서 다루는 『현우경』을 비롯하여 『범구비유경』, 『백유경』 등 경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불교경전의 이야기는 경전이 결집되기 전까지 12분법에서 말하는 비유나 전생 이야기의 형태로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경전 결집시 경의 형태로서 성립되어 전

7) Jerome S. Bruner, op. cit.

8) 한승희, 「내러티브 사고양식의 교육적 의미」, 『교육과정연구』 제15권(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1997), 413쪽.

9) Carol Lauritzen, Michael Jager, *Integrating Learning Through Story: The Narrative Curriculum*, 강현석 등 공역,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이당, 2007), 73쪽.

해진 것으로 추론된다. 이 경전들 가운데 붓다 교설의 주제로서 인연담을 말하고 있는 『현우경』의 69가지의 이야기¹⁰⁾ 가운데 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러티브적 특성과 그 교육적 의미를 논구하기로 한다.

이야기 : 금재의 보시 (현우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수급고독원에서 1,250인의 존중할 만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성[왕사성] 가운데 한 장자가 있었다. 장자의 부인이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금재였다. 그 아이는 세상에는 드물게 용모가 단정하고 뛰어났다. 이 아이는 숙세의 인연으로 주먹을 쥐고 태어났다. 부모는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이것을 상서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아이의 양손을 펴서 그 모습을 보니 두 개의 동전이 양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부모는 기뻐서 곧바로 집었는데 또 양손 바닥에 동전이 생겼다. 다시 그것을 집으면 또 동전이 생겼다. 이렇게 부지런히 동전을 집어 모으다 보니 창고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다. 그 아이의 손 가운데에서는 다하는 법이 없었다. 아이가 점차 자라서 부모에게 출가하기를 청하였다. 부모는 아이의 청을 거스르지 않고 허락하였다. 그때 금재는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두면으로 예배를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오직 원하나니 불쌍히 보시어 저의 출가를 허락해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금재에게 이르셨다. “너의 출가를 허락한다.” 부처님께 허락을 받자마자 금재는 머리카락이 잘려졌으며 가사가 몸에 입혀지게 되어 사미가 되었다. 그는 나이가 들자 계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 스님들이 구족계를 주게 되었다. 그는 계단의 여러 스님들께 나아가 차례로 예배를 하였는데 예배를 할 때마다 양손이 닿는 땅에는 동전 두 닢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이와 같이 차례대로 하니 일체가 예가 되었으며, 예배를 하는 곳을 따라 모두 동전이 놓여 있게 되었다. 그는 계를 받고는 부지런히 정근하며 닻아 익히니 아라한의 도과를 얻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금재 비구는 본래 어떤 복을 지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동전을 쥐게 되었습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나니 말씀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이것을 설하겠으니 너는 마땅히 잘 생각하여라.” 하였다. 아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 91겁 때 비바시라고 이름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정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셨다. 부처님께서 여러 스님들과 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실 때 여러 부호와 장자 아들들이 공양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과 제자 스님들에게 공양하였다.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항상 들과 못이 있는 곳에서 땀감을 해 다가 팔곤 하였다. 어느 날 땀감을 팔아서 동전 두 닢을 갖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즉시 동전 두 닢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였다. 부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것을 받아주셨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그때 가난한 사람이 이 동전 두 닢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

10) 현우경의 69가지 이야기 가운데 일부 이야기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하살타가 몸을 호랑이에게 보시한 이야기, 거타가 몸을 보시한 이야기, 아수가가 흙 한줌을 보시한 이야기, 가난한 여인인 난타가 등(燈)을 보시한 이야기, 아난다가 전생에 사미에게 음식을 보시한 공덕으로 현생에 뛰어난 기억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 한 사미가 목숨과 바꿔 계율을 지킨 이야기, 바세질이 여색(女色)에 빠진 이야기, 거짓 증언한 과보로 귀도 눈도 없이 태어난 장자 이야기, 가비리가 악담을 한 과보로 백개의 머리를 지닌 물고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

였기 때문에 91 겁의 세월동안 항상 돈을 지니고 그것이 다하는 바가 없이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그때 가난한 사람이 바로 금재비구이다. 그가 도를 얻지는 못했을 지라도 미래의 과보는 한량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이여, 일체중생은 부처님께 보시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 때 아난과 여러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게 되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함과, 그리고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또한 불퇴전의 경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¹¹⁾

이상 경전이 전하는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재 비구가 전생에 동전 두 닢을 비바시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인 여러 스님들께 보시한 공덕으로 이후 태어날 때마다 손에 동전을 쥐고 태어났으며, 현세에 한량없는 과보를 얻었다는 인연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보시가 갖는 의미와 그것의 중요함을 금재비구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금재비구의 전생 이야기는 붓다가 제자들에게 설하는 전통적인 교육내용인 교설중심의 교육내용에서 벗어난다. 붓다는 아함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러 경전을 보면 체계적으로 교설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설하였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교설 중심으로 설하는 방식이 붓다의 주된 설법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우경』의 설법방식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유발과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의 소재로서 금재 비구가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인 여러 스님들께 보시한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양손에 황금으로 된 동전 두 닢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현우경』 외 자타카 등 다른 경전들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경전 구성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교설중

11) 『賢愚經』 卷2 『金財因緣品』(大正藏4) p358b.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尊弟子千二百五十人俱。爾時城中。有大長者。長者夫人。生一男兒。名曰金財。其兒端政殊特。世之少雙。是兒宿世。捲手而生。父母驚怪謂之不祥。即披兒兩手。觀其相好。見二金錢在兒兩手。父母歡喜。即便收取。取已故處續復更生。尋更取之。復生如故。如是數取金錢滿藏。其兒手中。未曾有盡。兒年轉大。即白父母。求索出家。父母不逆。即便聽之。爾時金財。往至佛所。頭面作禮。而白佛言。唯願世尊。當見憐愍。聽我出家。得在道次。佛告金財。聽汝出家。蒙佛可已。於時金財。即剃鬚髮。身著袈裟。便成沙彌。年已滿足。任受大戒。即令眾僧當受具足。臨壇眾僧。次第為禮。其作禮時。兩手拍地。當手拍處。有二金錢。如是次第。一切為禮。隨所禮處。皆有金錢。受戒已竟。精勤修習。得羅漢道。阿難白佛。不審世尊。此金財比丘。本造何福。自生已來。手把金錢。唯願世尊。當見開示。佛告阿難。汝當善思。我今說之。阿難對曰如是。諸當善聽。佛言。乃往過去九十一劫時。世有佛名毘婆尸。出現於世。政法教化。度脫眾生。不可稱數。佛與眾僧。遊行國界。時諸豪富長者子等。施設飯食。供養彼佛及弟子眾。爾時有一貧人。乏於財貨。常於野澤。取薪賣之。值時取薪賣得兩錢。見佛及僧受王家請。歡喜敬心。即以兩錢。施佛及僧。佛愍此人。即為受之。佛告阿難。爾時貧人。以此二錢。施佛及僧故。九十一劫。恒把金錢。財寶自恣。無有窮盡。爾時貧人者。金財比丘是也。正使其人未得道者。未來果報。亦復無量。是故阿難。一切眾生。皆應精勤布施為業。爾時阿難。及眾會者。聞佛所說。皆悉信解。有得須陀洹果者。斯陀含。阿那含。阿羅漢者。有發無上正真道意者。復有得住不退地者。一切眾會。聞佛所說。歡喜奉行。”

심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이질적인 방식인 점은 분명하지만 학습자에게 불교에 관한 동기유발과 함께 흥미를 유발시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이야기는 단지 학습자에게 동기유발과 흥미를 일으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학습의 목적인 보시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고, 그와 같은 이해의 바탕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적인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 이야기를 통한 수업 과정이 구성주의 학습방법에서 말하는 학습자의 참여와 창의적인 학습의 형태를 띠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야기가 학습자에게 의미있게 수용되는 예로서 자타카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친사회적행동발달에 대한 실험집단의 변화 <표-1>¹²⁾를 들 수 있다.

<표-1> 프로그램 실시 전후 친사회적행동발달에 대한 실험집단의 변화

친사회적 행동발달 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value
	M (SD)	M (SD)	
자기존중	1.87(0.78)	2.50(0.73)	4.29***
자기조절	2.07(0.98)	2.50(0.68)	2.77**
타인존중	1.63(0.72)	2.40(0.67)	5.77***
우정	1.30(0.70)	2.20(0.92)	5.34***
배려	1.87(0.63)	2.37(0.67)	1.67
협동	1.17(0.79)	2.27(0.87)	6.06***
도움	1.90(0.66)	2.30(0.75)	3.00**
존경 · 고려	1.97(0.96)	2.57(0.77)	3.46**
전체	13.77(4.12)	19.10(3.61)	6.66***

N=30

p<.01, *p<.001

이 표에 의해 실험에 참여한 유아들의 실험 참여 전과 참여 후로 나누어 수치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동발달 영역 가운데 자기존중이 1.87에서 2.50으로, 자기조절이 2.07에서 2.05로, 타인존중이 1.63에서 2.40으로, 우정이 1.30에서 2.20으로, 배려가 1.87에서 2.37으로, 협동이 1.17에서 2.27으로, 도움이 1.90에서 2.30으로, 존경 · 고려가 1.97에서 2.57로 각각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비록 자타카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 『현

12) 권은주(대원) · 박사빈, 『자타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28쪽.

우경』 등 다른 경전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활용하여도 이와 비슷하게 행동발달 영역의 각 항목의 수치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이야기를 통한 수업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목적 달성을 위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와 창의적인 학습의 분위기 속에서 후속적인 학습을 완성하도록 하는 이점으로서 작용하는 교육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불교 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과 그 교육적 의의

1. 불교 경전 이야기의 수기적(隨機的) 학습방법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교육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의 수업을 전개할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한다. 이것은 마치 경주하는 말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기수가 말을 잘 제어하는 것과 같다.

말이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교육과정에서는 Currere라고 하는데, Currere는 Curriculum의 라틴어로서 경주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Currere는 코스를 달리기 위한 교육과정의 수단이거나 또는 코스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승점에 비유되는 교육목적, 특히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교육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불교적 교사인 선지식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획하게 된다.

불교에서 보는 학습자(제자 또는 신도)의 수준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식계급으로서 논리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 고행만 주장하는 사람들, 단계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의학적 치료원리에 따른 교수법이 필요한 사람들, 문답과 토론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침묵이 필요한 사람들, 외적인 모습, 즉 위의(威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집단교육속의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¹³⁾로 대별할 수 있다.

불교적 교사인 선지식¹⁴⁾은 교육목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이처럼 천차만별의 사람

13)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수기적(隨機的) 교수법 - 진리와 방편의 역동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 2007), 13쪽-20쪽.

14)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126쪽. 60화엄경(六十華嚴經)에 보면 선지식이 교화의 대상인 제자의 慈母·慈父·養育守護者·大師·導師·良醫·雪山·勇將·牢船·船師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선지식이 학습자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慈母가 되는 것이니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집이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慈父가 되는 것이니 한량없는 많은 일들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

들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천차만별의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야기를 통해 교육을 할 대상들이 정해졌다면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여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교적 교사인 선지식이 교육현장에서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경전 속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붓다의 생애와 중심교설, 또는 도덕적 교훈 등의 학습내용을 학습자인 여러 대중들에게 이야기의 방식으로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학습 내용인 이야기에 흥미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중심 교설이 쉽게 이해가 되고, 가능하다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되고 점차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야기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은 교육의 목적이고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를 말하는 학습방법 등은 교육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의 목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그 수단인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를 설하는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이 그 이론적 기초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방편(upāya)’은 ‘방편시설’(方便施設)이라고도 하는데 방편은 ‘접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설(prāṇapti)’은 ‘알아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용표는 이런 방편에 대해 “학습자의 능력을 점차 성숙시켜 마침내 구경의 정각에 접근케 하려는 불교의 교육방법론을 총칭한다.”¹⁵⁾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교육방법은 그 주제와 내용, 그리고 청법자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맥락적 가르침(contextual teaching)으로서 학습자의 능력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관심사와 필요성 등 교육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는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이라고¹⁶⁾도 말하고 있다.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에는 붓다가 행한 여러 가지 교육방법들¹⁷⁾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점

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養育守護者가 되는 것이니 一切의 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니 教化하여 菩薩戒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教化하여 彼岸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良醫가 되는 것이니 모든 煩惱의 근심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雪山이 되는 것이니 明淨한 지혜의 藥을 長養시키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勇將이 되는 것이니 一切의 모든 공포를 防護하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견고한 배가 되는 것이니 모두 生死의 바다를 넘어 건너가게 하기 때문이다. 善知識이라는 사람은 곧 사공이 되는 것이니 모든 知慧의 法寶의 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15) 위의 글, 2쪽.

16) 같은 글.

17) 김용표, 앞의 글, 13-20쪽. 김용표는 붓다의 교육방법을 열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① 지식계급에 대한 논리적 교육, ②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관(不淨觀), ③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을 위한 수식관(數息觀), ④ 고행만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중도의 가르침, ⑤ 단계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차적 교육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수목건련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만약 어떤 제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처음에 1과 1을 가르치고 2와 2, 3과 3, 10, 100, 1,000, 10,000으로 점차 차례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구답이시여 이법과 계율 가운데 무엇을 일컬어 점차 차례로 성취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는지요?¹⁸⁾

바라문인 산수목건련은 숫자의 학습은 1에서부터 점차적인 차례로 10,000까지 이루어지는데 붓다의 법에도 이러한 점차적인 가르침의 방법이 있는가 질문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존께서 목건련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바른 교설이라면 점차적으로 차례로 이루어져 이에 성취된다. 목건련. 나의 법은 율 가운데 이른바 바른 교설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목건련. 나는 이 법에 대해 율은 점차 차례대로 성취된다고 말한다. 목건련. 만약 연소한 비구가 처음 불법을 배우러 오면 처음 법에 들어와 율이란 것을 먼저 가르친다. 비구여. 너는 와서 몸을 보호하고 청정하게 한다. 입과 마음도 보호하고 청정하게 한다라고. 목건련. 만약 비구가 몸을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고, 입과 마음을 보호하고 청정하게 하면 여래는 다시 그 위의 가르침을 편다. 비구여. 너는 와서 안의 몸을 바깥의 몸과 같이 관(觀)하고 깨달음을 관(觀)함에 이른다. 마음과 법도 법답게 한다라고. 목건련. 만약 비구가 안의 몸을 바깥의 몸과 같이 관(觀)하고 깨달음을 관(觀)함에 이르고, 마음과 법도 법답게 하면 여래는 다시 그 위에 가르침을 편다. 비구여. 너는 와서 안의 몸을 바깥의 몸과 같이 관(觀)하고 욕심과 상응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깨달음을 관(觀)하여 마음과 법을 법답게 한다. 법이 아닌 것은 상응하여 생각하지도 말라라고.”¹⁹⁾

산수목건련과 붓다의 대화는 붓다의 교설이 처음에는 계율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관(觀)하는 법을 익히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점진(漸進)·차제(次第), 즉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매우 체계적인 학습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교육에서 말하는 학습은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 즉 계열성(Sequence)의 원리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경험요인을 단순히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인 줄기는 있으며, 동시에 그 줄기에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붙어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²⁰⁾ 이것은 학습자가 먼저 낮은 단계의 학습경험을 한 다음에 그

위한 점진적인 학습법, ⑥ 의학적 치료원리에 따른 교수법, ⑦ 문답과 토론을 통한 교육, ⑧ 침묵이 필요한 경우, ⑨ 위의(威儀; 외적인 모습)를 통한 교육, ⑩ 집단 교육속의 개별화 교육

18) 『算數目揲連經』 卷3 『梵志品』(大正藏1) p.652a. “若有弟子, 或男或女, 始教一一數, 二, 三, 三, 十, 百, 千, 萬, 次第至上, 漸次第至成訖, 沙門瞿曇, 此法, 律中, 云何漸次第至成就訖.”

19) 위의 책, “世尊告曰, 目揲連, 若有正說漸次第作, 乃至成訖, 目揲連, 我法, 律中謂正說, 所以者何, 目揲連, 我於此法, 律漸次第作至成就訖, 目揲連, 若年少比丘初來學道, 始入法, 律者, 如來先教, 比丘, 汝來身護命清淨, □, 意護命清淨, 目揲連, 若比丘身護命清淨, □, 意護命清淨者, 如來復上教, 比丘, 汝來觀內身如身, 至觀覺, 心, 法如法, 目揲連, 若比丘觀內身如身, 至觀覺, 心, 法如法者, 如來復上教, 比丘, 汝來觀內身如身, 莫念欲相應念, 至觀覺, 心, 法如法, 莫念非法相應念.”

바탕위에 점진적으로 높은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전에서 설하는 이야기는 학습자의 근기에 따른 방편으로서 설계된 수기적 학습방법임과 동시에 현대적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인 계열성의 원리에 따른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교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

이야기는 수업의 기대태세로서의 이야기, 적용으로서의 이야기, 수업의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 자원으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과정 틀로서의 이야기 등으로서 역할을 한다.²¹⁾ 이러한 이야기의 역할이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수업의 기대태세로서의 이야기란 수업에서 이야기를 방책으로 쓰는 이유를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끌며 학습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고, 이때 이야기가 기대태세로서 본격적인 수업을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는 사용한 후 버려지게 되며, 수업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야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²²⁾ 『현우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세경(起世經)』 등 경전을 보면 믿기 어려운 신화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사실 여부도 물론 문헌적인 연구에서 볼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흥미를 끝만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기대태세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용으로서의 이야기란 교사가 과학과 국어를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의 개념에 이야기를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²³⁾ 교사가 보시란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보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개념을 알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교사가 인욕, 지계, 지혜 등 개념이나 다른 불교교학의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매개체가 되어 개념 파악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의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란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배운 것을 요약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²⁴⁾ 교사가 보시에 대한 개념을 현우경을 예로서 들어 학습자인 학생에게 설명하다가 학생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끌어와 설명함으로서 학생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으로서의 이야기란 특정 주제에 통찰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읽는 것을 말한다.²⁵⁾ 교사가 보시, 지계, 인욕 등 수업의 한 단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관련된

20) 고진호·정덕희, 『법장의 화엄사상과 그 교육적 의미 - 시간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교육철학』 제33집 (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5), 251쪽.

21) Carol Lauritzen, Michael Jager, 앞의 책, 231쪽.

22) 같은 글.

23) 위의 글, 232쪽.

24) 같은 글.

이야기나 책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틀로서의 이야기란 이상의 역할에서 보듯이, 이야기가 학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²⁵⁾

이야기는 수업시 이와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함으로서 보시(布施) 등 중심 교설의 개념이 불교적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여 학습자인 제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합적 학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러한 역할만 가지고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장면, 인물, 행위, 갈등, 해결, 매력적인 주제 등 문학적인 요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야기는 교사나 학생 누구나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이야기를 구성하는 장면, 인물, 행위, 갈등, 해결, 매력적인 주제 등의 요소들이 작품이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선정된다.

이것은 학습내용 선정과 관련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처럼 이야기 속에 장면, 등장인물, 줄거리, 주제 등 네 가지 문학적인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갖춘 이야기는 교육적 전개에 있어서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게 한다.

문학적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경전의 문학적인 유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전의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의 형태로서 문자로서 성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설법의 내용이 기억에 의존한 채 구술의 방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승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교단이 확립되고 내용이 풍부해지게 되어 전해 내려오는 교설의 체계가 필요하였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타난 형식이 12분교 형식이다. 처음에는 9분교였다가 뒤에 3분교가 생겨나서 12분교가 되었던 것이다.

경전의 비유적인 내용이 12분교 가운데 바로 아바다나로서 처음에는 문학적 비유의 형식으로 된 이야기들이 따로 전해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는 후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전 이야기가 학습자에게 전달될 때 문학적인 구성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역할과 문학적인 특성 등으로 볼 때 불교적 이야기가 내러티브 학습 방법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교육적 의의

불교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은 학습자의 학습을 위한 목표-보시, 지계, 인

25) Carol Lauritzen, Michael Jager, 앞의 글, 233쪽.

26) 같은 글.

육, 정진 등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 -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맥락-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대한 조사-을 세웠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실천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학습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전략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현우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교사와 학생은 금제비구의 보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읽거나 이야기에 참여할 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다.

비바시불은 누구인가?

물질적인 보시만이 진정한 보시인가?

이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비바시불에 관한 자료를 불교경전이나 불교문헌 등에서 찾아봄으로써 비바시불의 의미와 유래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게 된 비바시불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이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보시란 무엇이며, 물질적인 보시 밖에 다른 보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게 된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의 개념에 대한 앎과 더불어 보시의 실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의 전달보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의 학습방법은 학습자의 참여와 특히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불교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은 학습자의 근기, 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방편적으로 학습자를 학습시킴으로써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적 경험의 첫 단계를 이루게 되고, 점차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방법이 구성주의 학습방법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지식의 전달에만 치중한 교육과정인 교육의 목표 설정과 그 계획, 그리고 교육과정 실천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개념에 대해 다시 개념화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참된 교육을 위한 재개념주의이다.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자들은 이제까지 전통교육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의 기술적인 전달을 비판하고 본질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의 담론적 가치가 될 만한 여러 학문들, 즉 현상학, 해석학, 미학, 정치학 등 학문을 텍스트로 하여 연구함과 동시에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였다.

논자도 그런 관점에서 불교 경전 이야기를 텍스트로 한 수기적 학습방법이 교육적 경

험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개념주의적 담론으로서 교육적 전망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파이너(W. F. Pinar)는 교육적 경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과 가치 그리고 행동들에 대해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²⁷⁾ 그는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견해²⁸⁾, 즉 각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하나하나 돌아보아서 현재 자신의 생각이 과거 어떤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 알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경험을 끄집어 올리는 데서 시작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이너의 이와 같은 견해는 자아성찰(self-reflection)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인용한 휴브너(Huebner)의 말에서 교육적 여행(Educational journey)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목적은 정해졌고, 여행 목적지는 런던, 파리, 등등이다. 교육과정 이론가는 실천자이므로 여행에서 관심있는 점들에 대한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 대해 나를 가르치면서 이 여행에 나를 동반할 것이다.”²⁹⁾

이 경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이론가들은 교실 수업을 주로 주도하는 교사이고 학생은 여행자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여행자인 학생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또한 그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안다.”³⁰⁾

여행 안내자와 여행자에 각각 비유되는 교사와 학생의 이러한 교육경험의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런던과 파리에서 본 것인가? 또는 내가 질문에 대답한 것인가? 또는 역사와 심리학에 대해 많이 배운 것인가? 또는 내가 방문한 곳을 가는 것인가? 또는 가이드와 나와의 인간 관계인가?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7) 허숙,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 실존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교육학연구』 제33권 (서울: 교육학연구, 1995), 225쪽.

28) 한혜정, 「자아성찰과 교수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Autobiographical Method)」, 『교육과정연구』 제23권(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121쪽.

29) William Pinar, *Curriculum Theorizing* (California: McCutchan Publishing Corporation, 1975), 398쪽. ‘Currere: Toward reconceptualization’

30) 같은 글.

31) 위의 글, 399쪽.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나’는 무엇인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번 여행에서 나의 관심의 특성은 무엇인가? 런던과 파리에 대해서 나의 관심을 끌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스크바와 콘스탄티노플은 아닌가?”³²⁾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앎 그것 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며, 내가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교육경험이 학습자의 내재적인 자아로부터 싹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진 차제의 방편적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현우경과 같은 불교경전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불교와 그 교설에 익숙해지고 또한 점차적으로 교설을 배워서 그것이 마음 내면의 명상이나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 인격과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교육 여행에서의 담론적 가치가 됨과 동시에 미래의 희망적인 교육적 전망이 될 수 있겠다.

파이너는 융의 저서인 *The Integration of Personality*를 인용하여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내부세계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도록 하여 우리 자신으로부터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한다. 그러나 잊는 것은 제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적과 대면하는 대신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뒤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험을 겪는다.”라고 융이 지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³⁾

그러면서 그는 서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훈련, 즉 초월명상, 참선수행, 여러 가지 형태의 요가수행, 그리고 러시아의 신비주의적인 구르지예프 등을 생각하게 되며, 마음의 내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훈련들이 중요한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그러나 그는 이들 훈련들 어느 것들도 교육적 경험의 맥락에서 집중하여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⁵⁾

그러므로 파이너의 이러한 견해는 불교 경전 이야기를 통한 학습방법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적 경험의 성취를 위한 담론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32) 같은 글.

33) 위의 글, 388쪽.

34) 같은 글.

35) 위의 글, 388쪽

IV. 결 어

이제까지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는 브루너가 말했듯이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패러다임적 사고에 반하여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의도성을 인간의 행위, 문화적 규범과의 연관에 의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갖는 내러티브적 사고이며, 또한 ‘인생만들기’(life making)에서처럼 이야기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해 교사가 이야기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종의 학습을 위한 ‘이야기의 해석학적 방법’이 내러티브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적 사고와 해석학적인 특성의 바탕에는 구성주의가 깔려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이야기는 내러티브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해석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밖에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의 ‘정체성’(identity)을 길러주는 이로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이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경전 이야기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불교교육의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자타가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친사회적행동발달에 대한 실험집단의 변화 <표 1>은 이야기가 갖는 학습효과를 수치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내러티브의 교육적 의미와 경전에서 전하는 이야기의 특성과 의미 등에 대한 이해는 불교경전 이야기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교 경전의 이야기가 왜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전 이야기의 수기적 방편에 의한 학습방법과 함께 내러티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불교 경전의 이야기가 학습방법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우선 앞에서 예로 든 산수목건련경을 보면 붓다의 교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점진(漸進)·차제(次第)의 방법, 즉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매우 체계적인 학습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우경 등 경전 이야기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설해진 수기적 방편에 의한 학습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역할은 수업의 기대태세로서의 이야기, 적용으로서의 이야기, 수업의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 자원으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과정 틀로서의 이야기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수업의 기대태세로서의 이야기란 수업에서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끌며 학습동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기대태세로서 본격

적인 수업을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우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세경(起世經)』 등 경전을 보면 믿기 어려운 신화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흥미를 끝마친 신화적인 이야기가 수업의 기대태세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용으로서의 이야기란 교사가 과학과 국어 또는 다른 교과목을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에 이야기를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사가 보시, 인욕, 지계, 지혜 등 개념을 설명하다가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런 개념들과 관련된 『현우경』 등 경전에서 설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개념을 알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의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란 교사가 학습자인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배운 것을 요약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이 보시, 인욕, 지계, 지혜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끌어와 설명함으로서 학생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으로로서의 이야기란 특정 주제에 통찰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다. 교사가 보시, 지계, 인욕 등 수업의 한 단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관련된 이야기나 책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틀로서의 이야기란 이야기가 수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론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전 이야기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 있어서 내러티브 학습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불교경전 이야기가 학습방법으로서 갖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학습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수업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 경험의 성숙과 발달의 측면에서 현대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불교적 담론으로서의 대안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학습자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과정을 통한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질문 내용과 그것을 조사한 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에 대한 앎 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나’란 무엇이며, 내가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경험이 학습자의 내재적인 자아로부터 싹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현우경』에서 전하는 보시 등 중심 교설을 포함한 이야기가 교육과정의 불교학적 담론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여 교육적 경험이 성숙·발달하여 점차적으로 교설을 배우고 또한 그것이 마음 내면의 명상 수행이나 참선 수행으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깨달음으로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방법의 측면에서 미래지향의 재개념주의적 교육전망을 준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算數目捷連經』 卷3 「梵志品」(大正藏1)
- 『賢愚經』 卷2 「金財因緣品」(大正藏4)
- 고진호, 「교사의 해석학적 교육 실천방법 연구: 교육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3권.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 고진호·정덕희, 「법장의 화엄사상과 그 교육적 의미-시간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3집. 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5.
- 권은주(대원)·박사빈, 「자타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진리와 방편의 역동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김희용, 「내러티브(Narrative) 도덕교육의 성격과 실제」, 『교육철학』 제25집. 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4.
-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 손승남,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입각한 교육해석학의 가능성 탐색」, 『교육철학』 제19집. 서울: 한국교육철학회. 1998.
- 한승희, 「내러티브 사교의 장르적 특징에 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 한혜정, 「자아성찰과 교수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Autobiographical Method)」, 『교육과정연구』 제23권.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 Lauritzen, Carol, Michael Jager, *Integrating Learning Through Story: The Narrative Curriculum*, 강현석 등 공역,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당. 2007.
- Bruner, Jerome S., *In Search of Pedagogy*, Volume 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_____, *In Search of Pedagogy*, Volume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Pinar, William, *Curriculum Theorizing*. California: McCutchan Publishing Corporation, 1975.

원고접수: 2010년 11월 15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 소개: 이송곤

- ① 전공: 불교학/소속: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학, 불교와 교육과정, 교육철학
 - ③ 주요논저: 불성개념의 교육과정 원리
 - ④ E-mail: ksgleen@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Method for Learning in The Buddhist Sutra's Story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s

Lee, Songgon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arrative method for learning in The Buddhist Sutra's story and to suggest thereby its educational meaning within the context of Moder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purpose, First of all,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 focused on the hermeneutic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Bruner's Autobiographical view of narrative and the five roles of narrative in narrative curriculum which is based on constructivism.

Among those that the above indicated, The focus is mainly directed at the five roles of narrative, these are followings.

1. As a role of the preparation for the expectation in the tuition, narrative enables the learners to focus on their attention and to offer the motivation for the learning. By doing so, narrative leads to a stimulus in the tuition.

2. As a role of applications, narrative is the means that the subject matters are connected with the other subject matters and that enables the learners to use it for the purpose of the understading of the difficult conception of the subject matters.

3. As a role of the finishing of the tuition, narrative is the means that the teacher confirm that whether the learners comprehend or not the subject mattes of tuition and that uses it as the method for the summarizing what is learned.

4. As a role of the resources, narrative is the means that offers both the insight and the information to the specific subject.

5. As a role of the frame of curriculum, narrative functions as an important position throughout the whole progress of the curriculum in the tuition

I insist that there are the five roles of narrative which is called the integrated method

of learning within The HyeonWooSutra(賢愚經)'s story that I quoted, and these roles enable The Buddhist Sutra's story to be the method of learning in Buddhism.

Furthermore, I insist that the method of The Buddha's preaching within The Buddhist Sutra's stories like The HyeonWooSutra(賢愚經) is theoretically based on Both the step by step(漸進·次第) educational method by The SansuMokgeonryeo Sutra(算數目捷連經) and The 方便 by The Buddha's Teaching.

Next, The Buddhist Sutra's story ha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s. It represents the Buddhist reconceptualistic paradigm in modern education, which leads the learner to Enlightenment b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buddhist doctrine succeedingly through the narrative method of learning in constructivism.

The results show that the method for learning by the 方便 in The Buddhist Sutra's story will be educational perspective in the Buddhist educational field, that is to say, informal education, including formal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Narrative, The HyeonWooSutra(賢愚經), the narrative method for learning, the method for learning by the 方便, the reconceptualistic educational perspective, the five roles of narrative